

《黃帝八十一難經》中 俞穴條에 關한 研究(Ⅲ)

金善鎬·金容辰·尹暢烈*

I. 緒論

《黃帝八十一難經》(以下 《難經》이라고 한다)은 《黃帝內經》(以下 《內經》이라고 한다)과 其他의 古醫經類에서 가장 難解하고 核心的인 主題를 가려, 問答을 假設하여 疑難을 解釋하는 方式으로 編纂된 것으로 《內經》으로 代表되는 東洋醫學의 古典的, 原典的인 思想을 各種 臨床活用書들의 哲學的 根幹이 되게 하였고, 오늘날 韓醫學이 臨床治療醫學으로서 人類에 貢獻할 수 있게 한 崇高한 價値가 있는 書籍인 것이다.

《難經》은 예로부터 秦越人(扁鵲)著로 되어 있으나 過去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를 疑心하였다. 왜냐하면 《史記·扁鵲列傳》에 《難經》이 提示된 바 없고, 《漢書·藝文志》에도 이 書가 記載되어 있지 않다. 특히 그 內容으로 볼 때, 讖緯學說인 陰陽五行 神秘化의 影響을 받은 것이 매우 明顯하므로, 이것이 西漢以前의 著作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六朝時에 만들어진 것이라 하였는데, 그 主張은 著作年代를 너무 늦게 본 것이다. 왜냐하면, 《傷寒雜病論·自序》에 이미 八十一難의 名稱이 提示되었고, 또 《隋志》에 本書가 일찌기 三國時代 呂廣(呂博, 《玉匱經序》 呂博은 어려서부터 醫術로 有名하고 診脈論疾을 잘하였다. 著述한 바가 많고 吳나라 赤烏二年에 太醫令이 되었으며 《玉匱鍼經》을 撰하였고 81難經을 註하였는데 當代에 크게 流行하였다. 櫻窠集에는 呂廣이 吳나라 太醫令이며 《難經註解》를 著했다 하니 무엇이 옳은지는 未知다)의 注本에 言及되었음이 記載되어 있다. 卽 그것이 또 東漢以前에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¹⁾. 그러므로 近來의 사람

들은 本書를 東漢人의 所作이라고 考證함을 認할 수 있는 것이다.

《難經》에 最初로 註를 한 사람은 三國時 吳의 太醫令을 지낸 呂廣으로 알려졌으며 以後 數十家의 程註家에 依해 數十種의 註解書가 傳해 온다. 한편 本書에 대한 歷代研究는 대체로 《難經》의 原文을 註解·註釋하여 諸家의 研究를 匯選·補充하고 自己見解를 提出하는 方法과 《難經》原文中의 錯簡과 缺漏를 찾고, 編次를 再整理하여 《難經》原貌를 回復하기 위한 校勘을 試圖하는 方法으로 進行되어 왔다. 그러나 現在 우리나라에서는 《難經》에 대한 研究가 거의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難經》中 俞穴篇에 대하여 研究하고자 한다.

《難經》의 特長은 《內經》을 뛰어 넘는 獨創性이 있다.²⁾ 그 中의 한가지가 鍼灸學分野에서의 五輸穴과 原穴, 背俞穴과 腹募穴의 運用과 八會穴鍼灸治療上의 效能을 首唱한 점이다. 이는 62難에서부터 68難까지의 內容으로서 '俞穴篇'이라고도 한다.

第六十六難에서 第六十七難까지의 內容은 第六十六難에서는 十二經의 原穴과 三焦의 關係에 관하여, 六十七難에서는 募穴과 俞穴의 意義 및 그 治療作用에 대하여, 六十八難에서는 五俞穴의 意義와 主治하는 病症에 관하여 論하였다. 《內經》에서 말하지 못한 俞穴理論을 말하였으나 後世에 論難의 餘地도 없지 않다.

筆者는 바로 이 部分을 體系的으로 研究하고자 먼저 〈難經中 俞穴篇에 관한 研究 I〉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1)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95.

2)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관한 考察, 대전, 대전대학교, 1993, p.3.

과 〈難經中 俞穴篇에 관한 研究 II〉를 研究하였고, 이에 세번째 過程으로서 이 論考를 發表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本文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내용을 비교, 연구하기 위하여 各 難별로 原文에 縣吐를 하고 原文에 대한 解釋을 하였으며, 校勘字句解를 가하였고 各家注를 인용하여 縣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各 難에 관한 考察整理를 하였다.

가. 題目은 《難經校釋》에 依據하여 달았다.

나. 原文은 滑壽의 《難經本義》를 基準으로 삼았다.

다. 出處는 《內經》의 原文을 爲主로 밝혀 《內經》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출처없음'이라고 하였다.

라. 縣吐는 전래의 方式을 원칙으로 하였다.

마. 解釋은 原文의 縣吐에 充實하도록 直譯을 위주로 하되 各 注釋들 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위주로 하여 약간의 意譯을 하였다.

바. 校勘은 各 引用文獻 중에서 原文의 글자가 다른 것을 조사하였다.

사. 字句解는 原文 중에서 難解한 부분에 대하여 各 注家들의 의견과 各 解說書들의 意見들을 위주로 비교 설명하였다.

아. 各家注는 아래에 제시할 引用文獻의 注釋을 시대순으로 縣吐하여 제시하였고, 縣吐 이외에 注釋 내용의 이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脚注로 처리하여 제시하였다. 단 中國의 문헌을 앞에 제시한 후에 日本의 文獻들을 제시하였다.

자. 考察은 各家注의 내용들을 토대로 各 難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총괄하여 정리하였다.

차. 考察 중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

〈參考 註解書〉

著 者	書 籍	時 代	備 考
滑 壽	難經本義	元	《本義》라 稱한다.
王九思	難經集注		《集注》라 稱한다.
張世賢	校訂圖註 難經	明	《圖註》라 稱한다.
徐大春	難經經釋	清	《經釋》이라 稱한다.
黃元御	難經懸解		《懸解》라 稱한다.
丁 錦	古本難經 闡注		《闡注》라 稱한다.
葉 霖	難經正義		《正義》라 稱한다.
蔡陸仙	中國醫學 匯海難經	民國	《匯海》라 稱한다.
南京中 醫學院	難經譯釋	中國	《譯釋》이라 稱한다.
南京中 醫學院	難經校釋		《校釋》이라 稱한다.
凌耀星	難經校注		《校注》라 稱한다.
王洪圖	難經		《難經》이라 稱한다.
廖 平	難經經釋 補證		《補證》이라 稱한다.
唐湘清 黃維三	難經今釋 難經發揮	臺灣	《今釋》이라 稱한다. 《發揮》라 稱한다.
丹波 元胤	難經疏證	日本	《疏證》이라 稱한다.
藤萬卿	難經古義		《古義》라 稱한다.
加藤 宗博	盧經哀腋		《哀腋》이라 稱한다.
本間 祥白	難經之 研究		《研究》라 稱한다.

다고 생각되는 引用文獻에 대한 설명과 各家에 대한 해설이나 注釋의 보충설명은 脚注로 처리하였다. (各家에 대한 설명은 《難經本義》의 〈本義引用諸家姓名〉을 참고하였다.)

카. 本 論文에 사용한 부호는 引用文獻은 《 》, 校勘은 〈 〉, 字句解는 (), 各家注는 [], 脚注는 ' '로 표시하였다.

타. 強調해야 할 文句가 句인 경우에는 ' '로 強調하였고 節인 경우는 " "로 強調하였다.

本 論考에 參考한 《難經》의 註解書는 아래의 도표와 같다. 各 注釋書의 시대와 순서는 千柄泰의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關한 考察》중 "難經의 註解書 目錄"³⁾을 參照하였다.

Ⅲ. 研究 內容

第六十六難(十二經의 原穴과 三焦의 關係)

六十六難曰⁽¹⁾ 經言肺之原은 出於太淵⁽¹⁾하고
心之原은 出於太⁽²⁾陵⁽²⁾하고 肝之原은 出於太衝⁽³⁾
하고 脾之原은 出於太白⁽⁴⁾하고 腎之原은 出於
太谿⁽⁵⁾하고 少陰之原은 出於兌骨⁽⁶⁾하고 膽之原은
出於丘⁽³⁾墟⁽⁷⁾하고 胃之原은 出於衝陽⁽⁸⁾하고 三
焦之原은 出於陽池⁽⁹⁾하고 膀胱之原은 出於京骨⁽¹⁰⁾
하고 大腸之原은 出於合谷⁽⁴⁾⁽¹¹⁾하고 小腸之原
은 出於腕⁽⁵⁾骨⁽¹²⁾이라하니 十二經이 皆以俞⁽⁶⁾爲
原者는 何也⁽¹³⁾오

然이라 五藏俞者는 三焦之所行이오 氣之所留止
也⁽¹⁴⁾라

三焦所行之俞爲原者는 何也⁽¹⁵⁾오

然이라 臍下腎間動氣者는 人之生命也오 十二
經⁽⁷⁾之根本也라 故로 名曰原⁽¹⁶⁾이라 三焦者는 原
氣之別使也⁽¹⁷⁾니 主通行三⁽⁸⁾氣하고 經
歷於五藏六府⁽¹⁸⁾라 原者는 三焦之尊號
也⁽¹⁹⁾니 故로 所止輒爲原이라 五藏六府
之有病者는 皆⁽⁹⁾取其原也⁽²⁰⁾니라

【解釋】

經에 이르기를 肺之原은 太淵에서 出하고
心之原은 太陵에서 出하고 肝之原은 太衝에
서 出하고 脾之原은 太白에서 出하고 腎之原
은 太谿에서 出하고 少陰之原은 兌骨에서 出
하고 膽之原은 丘墟에서 出하고 胃之原은 衝
陽에서 出하고 三焦之原은 陽池에서 出하고
膀胱之原은 京骨에서 出하고 大腸之原은 合
谷에서 出하고 小腸之原은 腕骨에서 出한다
고 하니 十二經이 모두 俞로서 原을 삼는 것
은 어째서 입니까?

답이다. 五藏俞는 三焦의 所行이오 氣의
所留止이다.

三焦所行이 俞로서 原을 삼는 것은 어째서
입니까?

답이다. 臍下腎間動氣는 人의 生命이며 十

二經의 根本이다. 그러므로 原이라하고 三焦
는 原氣之別使로서 通行三氣를 主하고 五藏
六府를 經歷한다. 原은 三焦의 尊號이므로
所止가 原이 되며 五藏六府에 病이 있으면
모두 그 原穴을 取한다.

【出處】

《靈樞九鍼十二原》, 《靈樞本輸篇》.

【校勘】

- 〈1〉 曰; 《圖註》에는 '難'으로 되어 있다.
〈2〉 太; 《集注》, 《經釋》, 《闡註》,
《正義》에는 '大'로 되어 있다.
〈3〉 丘; 《圖註》, 《闡註》에는 '邱'로 되
어 있다. 《匯海》에는 '坵'로 되어 있다.
〈4〉 谷; 《圖註》에는 '骨'로 되어 있다.
〈5〉 腕; 《經釋》에는 '腕'으로 되어 있다.
〈6〉 俞; 《圖註》, 《闡註》에는 '臑'로 되
어 있다.
〈7〉 經; 《闡註》에는 '經中'으로 되어 있
다.
〈8〉 三; 《圖註》에는 '諸'로 되어 있다.
〈9〉 皆; 《集注》에는 없다.

【字句解】

太陵: 大陵穴을 말한다(4)5).

兌骨: '兌'는 '銳'와 通한다(6). 掌後銳骨로서
尺骨小頭를 말한다. 神門穴이 있다(7). 掌後銳
骨端陷中에 있다.

三氣: 다음과 같이 세종류의 解釋이 있
다(8).

上·中·下 三焦의 氣를 말한다(9).

通行三氣에서 三은 生字로 하여야 한다.

- 4) 凌耀星,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p.115.
5) 北京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29.
6) 凌耀星,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p.115.
7)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9, p.144.
8)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國立編譯館, 1985, p.248.
9)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79, p.144.

3)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關한 考察, 대전, 대전대학교, 1993, pp.40-42.

八難에서 '生氣之原'이라고 하였고 呂廣의 註에도 '三氣之原'이라고 하였다¹⁰⁾.

宗營衛를 말한다¹¹⁾.

原氣之別使: 別使는 '別行之使道'라는 뜻이다. 三焦에 別途의 使道가 있어서 原氣를 引導하여 上中下周身に 達하게 한다¹²⁾.

【各家注】

《本義》¹³⁾

〔1-12〕 肺之原太淵으로 至腎之原太谿는 見靈樞第一篇이라

其第二篇에 曰 肺之俞太淵 心之俞太陵 肝之俞太衝 脾之俞太白 腎之俞太谿 膀胱之俞束骨 過于京骨爲原 膽之俞臨泣 過于丘墟爲原 胃之俞陷谷 過于衝陽爲原 三焦之俞中渚 過于陽地爲原 小腸之俞後谿 過于腕骨爲原 大腸之俞三間 過于合谷爲原이라하니 蓋五藏陰經은 止以俞爲原原이나 六府陽經은 既有俞하고 仍別有原이라

或曰 靈樞以太陵爲心之原이라하니 難經亦然이나 而又別以兌骨爲少陰之原하니 諸家針灸書에 並以太陵爲手厥陰心主之俞하고 以神門在掌後兌骨之端者로 爲心經所注之俞하니 似此不同者는 何也오

按컨대 靈樞七十一篇에 曰 少陰無輸라하니 心不病乎아 岐伯曰 其外經病而藏不病이라 故로 獨取其經於掌後兌骨之端也하니 其餘脈出入屈折과 其行之疾徐가 皆如手少陰心主之脈行也라하니라

又第二篇에 曰 心出於中衝 溜於勞宮 注于太陵 行於間使 入于曲澤하니 手少陰也라하니라 (按컨대 中衝以下는 並手心主經俞라 靈樞自指後手少陰이로대 而手少陰經俞는 不別載也라)

又素問繆刺篇에 曰 刺手心主少陰兌骨之端에 各一疔어든 立已라하니라

又氣穴篇에 曰 藏俞五十穴이라하니 王氏注에 五藏俞는 惟有心包經井俞之穴하고 而亦無心經井俞穴이라하니라

又七十九難에 曰 假令心病하면 寫手心主俞하고 補手心主井이라하니라

詳此前後各經文義하면 則知手少陰與心主同治也니라

〔13-21〕 十二經이 皆以俞爲原者는 以十二經之俞 | 皆係三焦所行氣所留止之處也라

三焦所行之俞爲原者는 以齊下腎間動氣 | 乃人之生命이요 十二經之根本이며 三焦則爲原氣之別使하야 主通行上中下之三氣하야 經歷於五藏六府也하니 通行三氣라

卽紀氏所謂下焦 | 稟眞元之氣는 卽原氣也라 上達至於中焦하야 中焦受水穀精悍之氣하야 化爲榮衛하니 榮衛之氣 | 與眞元之氣로 通行하야 達於上焦也라 所以原爲三焦之尊號하고 而所止輒爲原은 猶警蹕¹⁴⁾所至稱行在所也라 五藏六府之有病者는 皆於是而取之 | 宜哉 | 저

《集注》¹⁵⁾

〔1〕 丁曰 在右手掌後魚際下라 是脈之大會故로 云肺之原出于太淵이라하니라

楊曰 穴在掌後 | 是也라

虞曰 針經에 言五藏有俞無原하야 原與俞共一穴所出이라하니라 難經엔 又言五藏有原所出이라 乃亦針經中俞穴也 | 라하니 兩義皆通也라

〔2〕 丁曰 在掌後兩筋間陷中이라 此는 是心包絡之原也라

虞曰 在掌後兩骨間이라

〔3〕 虞曰 在足大指本節後二寸이 是라 又曰 足大指本節後二寸或一寸半이니 是也라

〔4〕 丁曰 在足內側核骨下라

11) 滕萬卿, 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56.

12) 凌耀星,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p.115.

13) 滑壽, 難經本義, 臺北, 世一書局, 1980, pp.123-124.

14) 임금이 거동할 때 경계하여 동행을 금하는 일.

15) 王九思, 難經集注,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5, pp.265-266.

10) 丹波元胤, 難經疏證, 서울, 一中社, 1991, p.1015.

[5] 丁曰 在足內踝後跟骨間이 是也라

[6] 丁曰 神門穴 | 是也라 此는 是眞心之脈也라

楊曰 此는 皆五藏俞也라 所以五藏皆以俞爲原은 少陰眞心脈也에 亦有原在掌後兌骨端陷者中一名神門이요 一名中都이니 前云心之原出于大陵者는 是心包絡脈也니 凡云心病者는 皆在心包絡脈矣하고 眞心不病하니 故로 無俞라 今有原者는 外經之病이요 不治內藏也니라

[7] 丁曰 在足外踝下微前이 是也라

楊曰 足內踝後微前也라

[8] 丁曰 在足跗上五寸骨間動脈이 是也라

[9] 丁曰 在手小指次指本節後陷中이 是也라

楊曰 手表腕上也라

[10] 丁楊曰 在足外側大骨下赤白肉際라

[11] 丁曰 在大指次指間虎口內라

楊曰 手大指岐骨間이라

[12] 丁曰 在小指腕骨內이라

楊曰 在手腕陷中을 指腕者는 誤也라

虞曰 以上十二經은 皆配之五行이라 其五行에 行勝之年이면 於王前에 先瀉其原하고 不足之年이면 先補其原하니 卽此原也라

[13-21] 楊曰 齊下腎間動氣者는 丹田也라 丹田者는 人之根本也요 精神之所藏이요 五氣之根元太子之府也라 男子以藏精하고 女子主月水하야 以生養子息하니 合和陰陽之門戶也라 在齊下三寸方圓四寸하야 附著脊脈兩腎之根하니 其中央黃左青右白上赤下黑하니 三寸은 法三才요 四寸은 法四時요 五色은 法五行이라 兩腎之間을 名曰大海라하니 一名溺이라 水中有神龜하야 呼吸元氣하니 流行則爲風雨하야 通氣四肢하야 無所不至也라 腎者分爲日月之精과 虛無之氣하니 人之根本也라 齊者는 人之命也니 分爲一名太中極一名太淵 一名崑崙 一名持樞 一名五城하니 五城有眞人은 卽五帝也라 五城之外有八使者는 卽八卦神也라 八使者는 并太一로 爲九卿하고 八卦之外有十二樓하니 樓有十二子也라 并三焦神爲二十七大夫하고 又并四支神爲八十一元士라 齊中央

을 名太一이니 君之侯王王天大將軍特進侯主人身中萬二千神也라 郊在頭上腦戶中하고 廟在項後頂上하고 社在脾左端하고 稷在大腸窮하고 風伯在八門하고 八門在齊傍하고 雨師在小腸窮하고 四瀆雲氣在崑崙하고 弱水在胞中하니 所以備言此者는 欲明腎爲人生之本焉이라 故로 知丹田者는 性命之本也라 道士思神과 比邱坐禪은 皆行心氣於臍下者가 良爲此也 | 니라 故로 云原者는 三焦之尊號也라하니 三焦合氣於腎故也늘새니라

虞曰 在天則三元五運相因而成하고 在人則三焦五藏相因而成也라 素問¹⁶⁾曰 其氣三이요 其生五라하니 此之謂也라 啓玄子¹⁷⁾曰 人之所存은 秉五行之運用이라 徵其本始면 從三氣以生成하니 此則天地之原氣也라 故로 五藏六府有病에 皆取其原也니라

丁曰 三焦者는 皆十二經根本이니 是生氣之原也라 爲臣使之官하야 宣行榮衛하니 所以在陽經에 輒有其原也니라

《圖註》¹⁸⁾

[1-21] 太淵은 在掌後橫文頭陷中하니 是脈之大會요 手太陰之脈動也라 太陵은 在掌後兩筋間陷足¹⁹⁾이라 太衝은 在足大指末節後二寸이라 太白은 在足內側核骨下陷中이라 太谿는 在足內踝後筋骨上動脈陷中이라 兌骨은 在手掌後兌骨端陷中이라 一名神門이니 乃少陰眞心經也라 太陵이 心包絡脈之原은 凡心病이 皆在包絡이어나 或各藏相下하야 眞心不病하니 病則死眞心이라 故로 不施治하니 亦今有

16) 《素問·生氣通天論》: “黃帝曰 夫自古通天者生之本 本於陰陽天地之間 六合之內 其氣九州九竅五藏十二節 皆通乎天氣 其生五 其氣三 數犯此者 則邪氣傷人 此壽命之本也 蒼天之氣清淨 則志意治 順之則陽氣固 雖有賊邪 弗能害也 此因時之序 故聖人傳精神 服天氣 而通神明 失之則內閉九竅 外壅肌肉 衛氣散解 此謂自傷 氣之削也”

17) 王冰의 注에서 이와 똑같은 문장은 찾아볼 수 없다.

18) 張世賢, 圖註難經脈訣, 臺北, 大學書局, 1976, pp.7-8.

19) 足: '中'의 誤字인 듯하다.

治法者 外經之病也라 邱墟는 在足外踝微前陷中이라 衝陽은 在足跗上去陷谷三寸이라 京骨은 在足外側兌骨下赤白肉際陷中이라 合谷은 在手大指次指岐骨間陷中이라 腕骨은 在手小指外側腕前起骨下陷中이니 十二經之原이라 三焦由此臉하여 以行氣하고 三焦由此臉하여 以流止也라 三焦所行氣之臉而爲原者는 由臍下腎間動氣爲人生命也요 手足三陰三陽之根本이며 三焦資始於腎間이라 故로 名爲原也라 三焦는 乃原氣之別使니 主通行上中下三焦之氣也라 下焦稟原氣하니 原氣者는 卽眞原氣也라 上達至於中焦하여 主受五臟六腑水穀精悍之氣也라 化而爲榮衛하니 榮衛之氣 得眞元之氣相合하여 主氣通行達於上焦하여 始經歷乎五臟六腑也니라 原者는 非三焦之實名이요 乃三焦之尊號也라 故로 以三焦所留止之處로 輒以爲原하니 若五臟六腑之有病이어든 皆取其原穴하여 以治之하니 正所謂治病에 必求其本也라

《經釋》20)

- [1] 太淵은 在手掌後陷中이라
- [2] 大陵은 在掌後骨下橫紋中兩筋間하니 此手厥陰之穴也라 餘는 皆本經穴이라
- [3] 太衝은 在足大指本節後二寸陷中이라
- [4] 太白은 在足大指後內側白肉際陷中이라
- [5] 太谿는 在足內踝後五分이라
- [6] 少陰은 手少陰也라 兌骨은 卽神門穴이니 在掌後銳骨端陷中이라
- [7] 丘墟는 在足外踝下如前陷中이라
- [8] 衝陽은 在足肘上去內庭五寸高骨間動脈이라
- [9] 陽池는 在手表腕上陷者中이라
- [10] 京骨은 在足小指外側本節後大骨下白肉際陷中이라
- [11] 合谷은 在手大指次指岐骨間陷中이라
- [12] 腕骨은 在手外側腕前起骨下陷中이라
- [1-12] 按컨대 大陵은 乃手厥陰心主之穴이나 而此以爲心之原者는 何也오 靈九鍼十二

原篇에 云 陽中之太陽은 心也니 其原出於大陵이라하고 靈邪客篇에 云 少陰獨無俞는 何也오 曰心者는 五藏六府之大主也요 精神之所舍也니 其藏堅固하여 邪弗能容하니 故로 諸邪之在於心者는 皆在於心之包絡이라 此大陵이 所以爲心之原也라하니라 其取神門은 則又有說하니 邪客篇에 云 少陰獨無俞者는 不病乎아 曰 其外經病而臟不病이라 故로 獨取其經於掌後銳骨之端이라하니 卽此는 所謂兌骨也라 然이나 此는 乃治病取穴之法이요 而兌骨은 並非少陰之原也라 今乃以大陵爲心之原하고 又以兌骨爲少陰之原하니 心卽少陰也요 如此則少陰不但有俞 且有兩俞矣니 何弗深考也아 又按컨대 靈本輸篇에 云 心出於中衝爲井木 溜於勞宮爲榮 注於大陵爲俞 行於間使爲經 入於曲澤爲合이라하니 此는 皆手厥陰之穴이나 而經以爲心所出入之處하고 若厥陰本經은 經文에 反不指明井榮等穴하니 則手少陰之俞가 卽手厥陰之俞를 可知라 至甲乙經하여 始以少陰本經之少沖爲井 少府爲榮 神門爲俞 靈道爲經 少海爲合하니 至此而十二經之井榮乃備이나 然이나 此는 乃推測而定이요 實兩經21)之所無也라 今以兌骨爲少陰之原하니 此는 甲乙經之所本也라

[13] 按컨대 此는 又錯中之錯이라 靈本輸篇에 五藏止有井榮俞經合호대 六府則另有一原穴하니 然則五藏二俞爲原하고 六府則俞自俞而原自原하니 皆字何著이오 至以俞爲原之說하여는 則本靈九鍼十二原篇에 云 五藏有疾에 當取之十二原하니 陽中之少陰은 肺也니 其原出於太淵하니 太淵二요 陽中之太陽은 心也니 其原出於大陵하니 大陵二요 陰中之少陽은 肝也니 其原出於太衝하니 太衝二요 陰中之至陰은 脾也니 其原出於太白하니 太白二요 陰中之太陰은 腎也니 其原出於太谿하니 太谿二요 膏之原은 出於鳩尾하니 鳩尾一이요 盲之原은 出於臍映하니 臍映一이라 凡此十二原者는 主治五藏六府之有疾者也라하니 則十二原之名은 指藏不指府하고 共十二穴은 非謂十

20) 徐大春, 難經經釋,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烏州出版社, 1968, p.45.

21) 《內經》과 《難經》

二經之原也라 但其所指太淵으로 至太谿十穴은 則即靈樞本輸篇所謂俞穴이니 蓋五藏有俞無原이라 故로 曰以俞爲原이라하니 豈可概之六府乎아 何其弗深考也오

〔14〕十二經이 皆榮衛爲之流行호대 三焦者는 榮衛之所出이니 榮衛所留止之處는 卽三焦所留止之處也라

〔15〕言何以三焦之所留卽名爲原也라

〔16〕此卽三十六難所云이니 命門이 乃三焦之所本也라 詳三十六難中이라

〔17〕言根本原氣分行諸經하니 故曰別使라

〔18〕三氣는 三焦有上中下三者之氣也라

〔19〕分言之則曰三焦요 從其本而言之則曰原이라 故云尊號라하니라

〔20〕三焦爲原氣別使이니 則三焦氣所在卽原氣所在라 故卽以原名之하니 而病之深者는 當取乎此也라 靈九鍼十二原篇에 云 五臟有疾에 當取之十二原하니 十二原者는 五臟之所以稟三百六十五節氣味也라하니 說最明曉라

〔21〕按컨대 靈樞本輸篇에 五藏則以所注爲俞라하니 俞卽原也요 六府則以所過爲原하고 無以三焦之氣爲說하니 蓋各經中之氣留住深入之處 卽爲原이라 故九鍼篇에 云 十二原出於四關하고 其穴이 皆在筋骨轉接之地라 故病亦常留於此하니 若云三焦主氣면 則井榮도 亦皆三焦之氣이니 何獨以所注名爲原이오 況三焦自有本經道路ㅣ어늘 何必牽合이오

《懸解》²²⁾

〔1-21〕肺之原 出於太淵五句는 義見靈樞九鍼十二原하니 此皆五藏之俞穴也라 左右各一하야 共十穴하고 連膏之原 盲之原하니 膏之原은 出於鳩尾하고 盲之原은 出於腓腓한대 合爲十二原이라 少陰之原 出於兌骨은 謂神門也라 手少陰無俞이니 所謂心之原 出於大陵者는 皆手厥陰之俞也니 義見靈樞逆順肥瘦하니 舊本에 誤在邪客이라 故此補少陰之原句라 膽之原 出於丘墟六句는 義見靈樞本輸하니 此皆六府之原穴也라 十二經皆以俞爲原者는 謂九

鍼十二原中에 皆以五藏之俞穴爲原이요 非謂六府也라 以五藏之俞는 乃三焦之所行이요 是其氣所留止라 故稱曰原이라 蓋腎間動氣는 一身之原氣也요 三焦者는 腎中原氣之別使라 行於上下三焦 經歷五藏六府之俞穴하니 其所留止를 輒謂之原이라하니 以其原於動氣間而得名也라

《闡註》²³⁾

〔1-21〕太淵은 在手掌後陷中하니 手太陰所注요 此卽脈之大會也라 大陵은 在掌後骨下橫紋中兩筋間陷中하니 手厥陰所注라 太衝은 在足大指本節後兩寸하니 足厥陰所注라 太白은 在足大指後內側橫骨下하니 足太陰所注라 太谿는 在足內踝後筋骨上動脈陷中하니 足少陰所注라 兌骨은 一名神門이요 在掌後銳骨端陷中하니 當小指後하니 手少陰所注라 邱墟는 在足外踝下如前陷中하니 足少陽所過라 衝陽은 在足跗寸高骨間動脈去陷谷二寸하니 足陽明所過요 仲景所謂跌陽也라 陽池는 在手外腕上陷中 自本節後骨直對腕中하니 手少陽所過라 京骨은 在足小指外側本節後大骨下赤白肉際陷中하니 足太陽所過라 合(谷은 一名虎口니 在手大指令指岐骨陷中하니 手陽明所過라 腕骨은 在手外側腕前起骨下陷中하니 又手太陽所)過라 三焦之原은 在臍下腎間動氣之所하니 人之生命十二經之根本이 皆系乎此라 三焦在此하야 原氣 分別致使通行上中下三氣하고 經歷於五臟六腑之腧穴이라 因其經歷하야 故로 腧亦可名原也라하니 而所謂原者ㅣ 豈非三焦尊重之號乎아 五臟六腑之病에 皆取十二經之原穴하니 豈非三焦ㅣ 能統攝諸臟腑之一大腑乎아

《正義》²⁴⁾

〔1-12〕考甲乙經하면 肺之原은 太淵이니 在手掌後陷者中央하고 心之原은 大陵이니 在掌後骨下橫紋中兩筋間하니 此는 手厥陰心包

22) 黃元御,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664.

23) 丁錦, 古本難經闡註,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67.

24)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118-120.

絡之穴也라 心與包絡相通하니 故로 取此穴亦可謂之心也라 肝之原은 太衝이니 在足大指本節後二寸陷者中하고 脾之原은 太白이니 在足大指後內側白肉際陷者中하고 腎之原은 太谿니 在足內踝後筋骨上動脈陷者中하고 手少陰之原은 兌骨이니 卽神門穴이니 在手掌後銳骨端陷者中하고 膽之原은 丘墟이니 在足外踝如前陷者中하고 胃之原은 衝陽이니 在足跖上去內庭五寸高骨間動脈하고 三焦之原은 陽池니 在手表腕上陷者中하고 膀胱之原은 京骨이니 在足小指外側 本節後大骨下白肉際陷者中하고 大腸之原은 合谷이니 在手大指次指岐骨間陷者中하고 小腸之原은 腕骨이니 在手外側腕前起骨下陷者中이라하니라

按컨대 靈樞九鍼十二原篇에 曰 陽中之少陰은 肺也니 其原出於太淵하니 太淵二라 陽中之太陽은 心也니 其原出於大陵하니 大陵二라 陰中之少陽은 肝也니 其原出於太衝하니 太衝二라 陰中之至陰은 脾也니 其原出於太白하니 太白二라 陰中之太陰은 腎也니 其原出於太谿하니 太谿二라 膏之原은 出於鳩尾하니 鳩尾一이라 肱之原은 出於臑腋하니 臑腋一이라 凡此十二原者는 主治六府五藏之有疾者也라 脹取三陽하고 癢泄取三陰하니 是는 靈樞 以五藏之十二穴로 爲原이라 此는 則以六藏六府十二經各有原이니 言心之原出大陵者는 卽候包絡之病이니 蓋君相之血脈通貫也라 言少陰之原 出於兌骨者는 少陰心也라 兌骨은 卽神門라 邪客篇에 曰 少陰獨無俞者는 不病乎아 曰 其外經病而藏不病이라 故獨取經於掌後銳骨之端이라하니 卽此義也라 越人之意는 非謂心有兩原이요 乃指君相氣合厥陰少陰하야 可同治也라

[13-21] 十二經皆以俞爲原者는 言九鍼十二原中에 皆以五藏之俞穴爲原이요 非謂六府也라 然이나 五藏六府之俞는 皆係三焦之所行하야 其氣所留止之處也라 故로 稱曰原이라 三焦之根은 起於腎間命門하야 人之生命之原이요 十二經之根本이라 皆系乎此하니라 由鼻吸入之天陽하야 過肺歷心하야 引心火하고 循

臂筋하야 入腎系하야 之命門하야 蒸膀胱之水하야 化氣上騰하야 三焦主持相火하니 爲腎中原氣之別使는 是十二經之營衛流行이 皆三焦之所使也라 通行生氣於五藏六府之俞穴하니 其所留止를 輒謂之原이라하니 以其原於命門動氣間而得名이라 亦以見三焦는 乃腹包膜이니 其連網脂膜이 皆三焦之物이니 爲統攝藏府之郭郭也라

《匯海》25)

[1-21] 丁德用注에 太原은 在掌後魚際下하니 是脈之大會라 故云肺之原은 出於太原이라 太陵은 在掌後兩筋間陷中하며 太衝은 在足大指本節後二寸하며 太白은 在足內側核骨下하며 太谿은 在足內踝後筋骨間하니라 兌骨은 神門穴也라 丘墟은 在足外踝下微前하며 衝陽은 在足跖上五寸骨間動脈하며 陽池는 在手小指次指本節後陷中하며 京骨은 在足外側大骨下 赤白肉際하며 合谷은 在大指次指間虎口內 腕骨內하며 腕骨은 在小指腕骨內라

日醫滕萬卿注 三焦之所以行者는 何오 齊下腎間動氣 人之性命 十二經之根本也 云云數語는 一大關係라 蓋含蓄於腎間 則曰原氣 曰動氣요 潛行默運於一身則曰三焦니 二氣而一一氣而二者라 所謂原者는 三焦之尊號也요 且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이라 故云通行三氣하야 經歷五藏六府라 所謂三氣者는 言宗營衛也니 由此觀之 則三焦者는 一身流行之氣而內從藏府로 外逮四肢百骸하야 無所不至焉이라 故로 曰五藏六府之有病者는 皆取十二經諸原云이라 重按前篇에 三焦主治取臆中齊傍齊下라하고 此篇에는 以手足原穴爲三焦之主治라하야 彼此如不同하니 一則以其氣所位言이요 一則以其氣遊行言이니 並行不相悖者也라

滑伯仁注 肺之原太淵으로 至腎之原太谿는 見靈樞第一篇이라

其第二篇에 曰 肺之俞太淵 心之俞太陵 肝之俞太衝 脾之俞太白 腎之俞太谿 膀胱之俞東

25)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서울, 成輔社, 1978, pp.146-147.

骨 過于京骨爲原하야 十二經皆以俞爲原者는 以十二經之俞는 皆係三焦所行氣所留止之處也 일세니라 三焦所行之俞爲原者는 以齊下腎間動氣이니 乃人之生命이요 十二經之根本이라 三焦則爲原氣之別使하야 主通行上中下之三氣하야 經歷於五藏六府也하야 通行三氣라 卽紀氏所謂下焦는 稟眞元之氣니 卽原氣也라 上達至於中焦하야 中焦受水穀精悍之氣하야 化爲榮衛하야 榮衛之氣 與眞元之氣로 通行達於上焦也라 所以原爲三焦之尊號 而所止輒爲原이니 猶警蹕所至稱行在所也라 五藏六府之有病者는 皆於是而取之하니 宜哉라

徐靈胎注에 三焦는 爲原氣別使이니 則三焦氣所在는 卽原氣所在니 故卽以原名之하고 而病之深者 當取乎此也라 靈九鍼十二原篇에 云五藏有病 當取之十二原이라하니 十二原者는 五藏之所以稟三百六十五節氣味也니 說最明曉라

《古義》26)

[1-12] 按靈樞第一篇에 併太淵太陵太白太衝太谿五俞와 及鳩尾腓腧을 以爲十二原이라 하고 其第二篇에 連言五藏六府 惟有十一原이라하니 二篇은 俱代手少陰之原 以厥陰俞者 하니 蓋爲諸邪在心하면 皆在心之包絡하니 則知二經同治라 故로 省一하니라

原耳라 扁鵲乃從第二篇文으로 加以少陰眞心之俞하야 合爲十二하니 蓋靈樞第一篇에 以穴數之 則爲十二요 以經俞數之 則五俞니 其鳩尾腓腧二穴 既繫任脈하야 以此備原穴數 하니 亦古之一法이요 然非正經之原이라 故로 此難增入少陰出於兌骨一句하야 以明十二正經之原云이라

[13-21] 此一節은 具言原穴爲一身之至要라 然이나 十二經皆以俞爲原之言하야 似未免後學之疑는 何者오 六府既已俞外有原 則未必以俞爲原이나 然其言如是者는 蓋陽經者從俞過爲原하야 而其配五行도 亦俞原俱木이니 則知二穴同治라 雖然이라 六府既已俞外有原이

라 故로 答辭獨言五藏之俞 三焦之所行하고 而不言六府者는 各別有原이라 夫三焦之所以尊者는 何오 齊下腎間動氣 人之性命 十二經之根本也 云云數語는 一大關係라 蓋含蓄於腎間 則曰原氣 曰動氣요 潛行默運於一身 則曰三焦이니 二氣而一 一氣而二者라 所謂原者는 三焦之尊號也요 且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瀉이라 故云通行三氣하야 經歷五藏六府라 所謂三氣者는 言宗營衛也니 由是觀之 則三焦者는 一身遊行之氣 而內從藏府로 外逮四肢百骸하야 無所不至焉이라 故로 曰五藏六府之有病者는 皆取十二經諸原云이라 重按前篇에 三焦主治 取臏中齊傍齊下라하고 此篇에는 以手足原穴爲三焦之主治라하야 彼此各不同하니 一則以其氣所位言이요 一則以其氣遊行言이니 並行不相悖者也라 腎間動氣之說은 詳第三十篇이라

《夏腋》27)

[1-21] 十二經原俞은 見靈樞九鍼十二原及本輸篇이라 兌骨은 卽神門穴이라 十二經에 皆以俞爲原者는 以十二經之俞로 皆係三焦所行 氣所留止之處也라 三焦所行之俞爲原者는 假原氣以名之요 所謂原氣者는 齊下腎間動氣也니 此乃人之生命이요 十二經之根本也라 三焦는 以其別使로 主通行上中下之三氣하야 經歷於五藏六府也하니 皆三焦稟下焦之原氣하야 上達於胃之上中兩焦하야 化穀氣爲榮衛하니 故水穀之氣이 與眞元之氣相融蘇하야 而彌綸於一身하니 皆資藉三焦之所致라 經에 云眞氣者는 所受於天과 與穀氣로 并而充身也者는 此之謂也라 是는 所以原爲三焦之尊號 而所其留止爲原也라 五藏六府之有病者는 皆取其原하니 不亦宜乎아

《疏證》28)

按甲乙經에 曰 太淵은 在掌後陷者中央하며 太陵은 在掌後兩筋間者中하며 太衝은 在足大

27) 加藤宗博, 盧經夏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pp.43-44.

28) 丹波元胤, 難經疏證, 서울, 一中社, 1991, p.1015.

26) 滕萬卿, 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55.

指足本節後二寸하며 太白은 在足內側核骨下陷者中하며 太谿는 在足內科後跟骨上 動脈陷者中하며 丘墟는 在足外廉踝下 如前陷者中하며 衝陽은 在足趺上五寸 骨間動脈上하며 陽池는 在手表上腕上陷者中하며 京骨은 在足外側大骨赤白肉際하며 合谷은 在手大指次指間하며 腕骨은 在手外側腕前起骨下陷者中하니 按此段三焦는 與三十一難所謂로 同이라 弟堅 1 曰 通行三氣之三은 當是生字라 八難에 生氣之原이라하고 呂注에 作三氣之原이라하니 可證이라 禮樂記에 曰合生氣之和 道五常之行이라하고 鄭玄注에 生氣 陰陽氣也 紀天錫爲三焦之氣라하니 誤矣라 太素經에도 亦作行元氣하나라

【考察】

本篇은 十二經의 原穴에 대하여 論述하였고, 아울러 十二經이 모두 兪穴로써 原穴을 삼는 이유를 說明하였다. 本難의 內容은 《靈樞·九針十二原》과 《本輸篇》에 나오는 內容이다. 《靈樞·九鍼十二原》에서 이르기를 “陽中之少陰 肺也 其原出於太淵 太淵二 陽中之太陽 心也 其原出於太陵 太陵二 陰中之少陽 肝也 其原出於太衝 太衝二 陰中之至陰 脾也 其原出於太白 太白二 陰中之太陰 腎也 其原出於太谿 太谿二 膏之原 出於鳩尾 鳩尾一 盲之原 出於腓腓 腓腓一 凡此十二原者 主治六府五藏之有疾者也”라고 하였고, 《本輸篇》에서는 六腑의 原穴을 提示하였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內經》에서 말하는 十二原은 五臟經絡의 十二穴을 말하는 것으로, 本篇에서 말한 六臟六腑十二經에 각기 原穴이 있는 것과는 다르다. 또 《九針十二原》에서는 “少陰之原 出于兌骨”이라는 句가 나오지 않는데 本難에서 追加하였다. 《靈樞》에서는 陰經이 비록 六經이 있으나 단지 五原穴만을 提示하였고 陽經은 六經으로 六原穴을 提示하여 모두 十一原穴이었으나, 《難經》에서는 모두 十二原穴로 되었으니, 이는 《難經》이 《靈樞》의 두 편을 合하여 說明한 것이 아닐까 思料된다. 이 部分은 《內經》에서 進一步한

論述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注意할 것은 ‘心之原 出于太陵’과 ‘少陰之原 出于兌骨’이라고 한 것으로, 다른 穴位는 모두 本經에 속하지만 太陵은 本經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太陵은 많은 注家들이 ‘大陵’으로 보았고 《靈樞》에도 ‘大陵’으로 나오기 때문에 大陵으로 본다면, 이는 心經이 아니라 心包經의 經穴인 것이다. 兌骨은 여러 注家들이 神門으로 보았는데 兌骨이 神門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心經의 經穴인 것으로, 少陰이라는 것이 手少陰을 말하는 것이다. ‘心之原 出于太陵’에 대하여 여러 注가들은 《靈樞·邪客篇》에서 말한 “黃帝曰 少陰之脈獨無腧 何也 岐伯曰 少陰心脈也 心者五臟六腑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 其藏堅固 邪不能容也 容之則心傷 心傷則神去 神去則死矣 故諸邪之在於心者 皆在於心之包絡 包絡者 心主之脈也 故獨無腧焉”이라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모든 邪氣가 心에 있는 것은 모두 心包絡에 있게 되므로 心의 原穴이 手厥陰心包經의 大陵이 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少陰之原 出于兌骨’에서는 心經의 經穴인 神門을 原穴로 들고 있는데 心經에 病이 없다면 神門穴도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하여는 《靈樞·邪客篇》에서 말한 “黃帝曰 少陰獨無腧者 不病乎 岐伯曰 其外經病而藏不病 故獨取其經于掌後銳骨之端”이라고 한데 대해 여러 注가들이 意見을 같이 하였다. 즉 여기서의 銳骨은 兌骨로서, 心臟의 病이 아닌 心經의 病을 다스릴 때만 쓰인다는 것이다.

五臟은 兪穴로서 原穴을 삼는 반면, 六腑는 兪穴과 別途의 原穴을 두고 있다. 嚴密히 말하여 十二經이 모두 ‘以兪爲原’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本難에서는 十二經이 모두 ‘以兪爲原’하는 理由에 대하여 묻고 있다.

徐靈胎는 이에 대하여 十二經이 모두 兪穴로서 原穴을 삼는다는 것은 錯中の 錯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靈樞에 나오는 十二原이라는 것은 五臟의 十穴과 鳩尾 腓腓 二穴을 합하여 말한 것으로 六腑는 속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麟萬卿은 六腑는 俞穴외에 또 原穴이 있으므로 반드시 俞穴로서 原穴을 삼을 필요는 없는데 이와 같이 말한 것은 陽經이 '從俞過爲原'하여 五行으로도 모두 木이 되므로 두 穴이 同治임을 알 수 있다고 說明하였다. 다시 말해서 陽經에서는 俞穴다음의 穴이 原穴로서 같은 木性이므로 俞穴과 效能이 같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六腑가 비록 俞穴말고도 原穴이 있으나 俞穴과 原穴이 모두 木이 되고 二穴이 同治라서 關係가 密接하므로 本篇에서 말한 十二經이 모두 俞穴로서 原穴을 삼는다는 것은 결코 理致가 아주 없지는 않은 것이다. 筆者가 이러한 說을 따르는 理由는 여기서 말하는 '原'이 穴자리를 重視한 것이 아니고 經脈上에서 三焦의 氣가 '經歷'하는 部位에 重點을 두고 말한 것이므로, 陽經에서도 俞穴의 近處에 있음을 重要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本篇의 後端에서는 原의 重要性和 原의 意義에 대하여 說明하였다. 答에서 '五臟'이라고 한 것은 六腑를 省略한 것이라 여겨진다. 諸家들의 說明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原穴은 三焦가 行氣하여 留止하는 곳이며 三焦의 根本은 腎間命門에서 起한다. 臍下腎間動氣는 丹田이라고도 하는데 丹田은 人類生命의 根源이며 十二經의 根本이고 原氣의 所繫이다. 人이 鼻孔을 通하여 吸入한 天陽은 肺를 지나 丹田으로 들어가는데 膀胱의 水를 蒸하여 化氣上騰케 하고 三焦의 原氣는 周身に 運行하며 五臟六腑를 지난다. 그리하여 三焦는 原氣의 別使가 되는데 그 尊號로 原으로 불리게 되었다. 十二經의 俞는 三焦의 氣가 留止하는 곳이기 때문에 原穴이 되는 것이다. 原穴이 이와 같이 重要하기 때문에 五臟六腑에 病이 있을때 原穴을 取하여 治療하는 것이다.

이상의 內容을 圖表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마지막으로 三焦의 氣가 原穴에서만 '留止'하는지의 事實與否는 앞으로 더 研究해야 할

本義	原穴은 三焦가 行氣하여 留止하는 곳이며 三焦의 根本은 腎間命門에서 起한다. 臍下腎間動氣는 丹田이라고도 하는데 丹田은 人類生命의 根源이며 十二經의 根本이고 原氣의 所繫이다.
集注	《本義》와 비슷한 內容을 보임.
圖註	《本義》와 비슷한 內容을 보임.
經釋	① 十二原이 《內經》과 다르다고하여 鑿이라고 여김. ② 五俞穴에서 俞穴만을 原으로 삼을 根據는 없다고 여김.
懸解	《本義》와 비슷한 內容을 보임.
闡注	《本義》와 비슷한 內容을 보임.
正義	《本義》와 비슷한 內容을 보임.
匯海	《本義》와 비슷한 內容을 보임.
古義	《本義》와 비슷한 內容을 보임.
衰腋	《本義》와 비슷한 內容을 보임.
疏證	《本義》와 비슷한 內容을 보임.

것이다.

第六十七難(五臟募穴과 俞穴의 意義 및 그 治療作用)

六十七難曰 五臟募皆在陰 而俞在⁽¹⁾陽者 何謂也⁽¹⁾오

然이라 陰病은 行陽하고 陽病은 行陰하니 故로 令募在陰 俞在陽⁽²⁾⁽²⁾이라

【解釋】

五臟의 募穴이 모두 人體에서 陰에 屬하는 胸腹部에 있고 俞穴은 人體에서 陽에 屬하는 腰背部에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答이다. 陰病은 陽分인 俞穴로 行하고 陽病은 陰分인 募穴로 行하므로 募가 陰部에 있고 俞는 陽部에 있는 것이다.

【出處】

【校勘】

〈1〉在: 《闡註》에는 '皆在'로 되어 있다.

〈2〉陽: 《圖註》, 《闡註》에는 '陽也'로 되어 있다.

【字句解】

募: '募'는 '膜'와 通한다. 五臟募는 胸腹部에 있는 五臟募穴을 가리키며 經氣가 聚集하는 곳이다²⁹⁾.

29)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陰, 陽: 部位를 가리키는 것으로 陰은 腹部, 陽은 背部를 가리킨다³⁰⁾.

俞: 轉輸의 意味이다. 五臟俞는 腰背部에 있는 五臟俞穴을 가리키며 經氣가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轉輸된다³¹⁾.

【各家注】

《本義》³²⁾

[1-2] 募與俞는 五藏空穴之稱名也라 在腹爲陰하니 則謂之募라하고 在背爲陽하니 則謂之俞라하니라 募는 猶募結之募하니 言經氣之聚於此也라 俞는 史扁鵲傳에 作輸하야 猶委輸之輸하니 言經氣由此而輸於彼也라

五藏募는 在腹하니 肺之募中府二穴은 在胸部 雲門下一寸 乳上三肋間 動脈陷中하고 心之募巨闕一穴은 在鳩尾下一寸하고 脾之募章門二穴은 在季脇下直臍하고 肝之募期門二穴은 在不容兩旁各一寸五分하고 腎之募京門二穴은 在腰中季脇本하니라

五藏俞는 在背行足太陽之經하니 肺俞는 在第三椎下하고 心俞는 在五椎下하고 肝俞는 在九椎下하고 脾俞는 在十一椎下하고 腎俞는 在十四椎下하니 皆夾脊兩旁 各一寸五分이라

陰病行陽 陽病行陰者는 陰陽經絡 | 氣相交貫하고 藏府腹背 | 氣相通應하니 所以陰病은 有時而行陽하고 陽病은 有時而行陰也라 針法에 曰 從陽引陰하고 從陰引陽이라하니라

《集注》³³⁾

[1-2] 丁曰 人背爲陽하고 腹爲陰하니 是言五藏俞 | 皆在陽者이니 背俞也라 故肺俞二穴은 在第三椎下兩傍相去同身寸之一寸五分이 是也요 心俞二穴은 在第五椎下兩傍相去同身寸之一寸五分이 是也요 肝俞二穴은 在第九椎下兩傍相去同身寸之一寸五分이 是也요 脾俞二穴은 在第十一椎下兩傍相去同身寸之一寸五分이 是也요 腎俞二穴은 在第十四椎下兩傍相去同身寸之一寸五分이 是也라 肺之募은 中府二穴이니 在雲門下一寸乳上三肋間이 是也요 心之募는 巨闕一穴이니 在鳩尾下一寸이 是也요 脾之募는 章門二穴인 在季脇下直齊 | 是

也요 肝之募는 期門二穴이니 在不容兩傍一寸五分이 是也요 腎之募는 京門二穴이니 在腰中季脇本이 是也라

楊曰 腹爲陰하고 五藏之募 | 皆在腹하니 故로 云募皆在陰이라하고 背爲陽하고 五藏之俞 | 皆在背하니 故로 云俞皆在陽이라하니라 內藏有病則出行於陽하니 陽俞在背也라 外體有病則入行於陰하니 陰募在腹也라 故로 鍼法에 云從陽引陰하고 從陰引陽이라하니 此之謂也라

《圖註》³⁴⁾

[1-2] 腹屬陰하니 五藏之募 | 皆在腹이라 背屬陽하니 五藏之俞 | 皆在背라 肺之募曰中府니 中府二穴은 在雲門下一寸乳上三肋間 動脈應手陷中하고 心之募曰巨闕이니 巨闕一穴은 在鳩尾下一寸하고 脾之募曰章門이니 章門二穴은 在大橫外直臍季脇端하고 肝之募曰期門이니 期門二穴은 在不容傍一寸五分直兩乳第二肋端하고 腎之募曰京門이니 京門은 在監骨腰中季肋使脊하니라 肺俞二穴은 在三焦下兩傍하고 心俞二寸³⁵⁾은 在五椎下兩傍하고 肝俞二穴은 在九椎下兩傍하고 脾俞二穴은 在十一椎兩傍하고 腎俞二穴은 在十四椎下兩傍하야 俱挾脊各去一寸五分하니 此募俞之所在也라 陰病行陽하니 乃風寒之邪 | 外入하야 在人之背하고 陽病行陰은 是水穀之寒熱이니 感則害人六腑傳于五臟하니 故令募穴은 皆在于腹하고 俞穴은 皆在于背也라 陰病行陽하니 當從陽引陰하야 其治在俞하고 陽病行陰하니 當從陰引陽하야 其治在募하니라

《經釋》³⁶⁾

30) 凌耀星,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p.117.

31)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79, p.146.

32) 滑壽, 難經本義, 臺北, 世一書局, 1980, pp.123-124.

33) 王九思, 難經集注,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5, pp.265-266.

34) 張世賢, 圖註難經脈訣, 臺北, 大孚書局, 1976, pp.7-8.

35) 寸: '穴'字의 誤字인 듯 하다.

[1] 募는 音幕니 氣所結聚處也라 俞는 史記扁鵲傳에 作輸하니 猶委輸之義也라 陰은 腹也니 肺募 中府는 屬本經하고 心主募 巨闕은 屬任脈하고 脾募 章門은 屬³⁷⁾募 期門은 屬本經하고 腎募 京門은 屬膽經하고 胃募 中脘은 屬任脈하고 大腸募 天樞는 屬胃經하고 小腸募 關元은 屬任脈하고 膽募 日月은 屬本經하고 膀胱募 中極은 屬任脈하고 三焦募 石門은 屬任脈하니 諸脈皆在腹也라 陽은 背也니 素氣府論에 五藏之俞各五 六府之俞各六이라하고 靈樞篇에 云 肺俞在三焦³⁸⁾之間 心俞在五焦之間 膈俞者³⁹⁾ 在七焦之間 肝俞在九焦之間 脾俞在十一焦之間 腎俞在十四焦之間 皆挾脊相去三寸所라하니 焦는 卽椎也라 其心包俞는 在四椎下하고 大腸俞는 在十六椎下하고 小腸俞는 在十八椎下하고 膽俞는 在十椎下하고 胃俞는 在十二椎下하고 三焦俞는 在十三椎下하고 膀胱俞는 在十九椎下하니 諸穴 | 亦挾脊相去三寸하야 俱屬足太陽脈하니 皆在背也라

按六府募 | 亦在陰하고 俞 | 亦在陽하니 不特五藏爲然이라 又下節陰陽은 並聚爲言이요 疑五藏下當有六府二字라

[2] 言陰陽⁴⁰⁾은 本皆在腹而其俞則俱在背하고 陽經은 本皆在背而其募則皆在腹하니 蓋以病氣互相流傳由經絡하니 本互相通貫이라 故로 其氣之結聚輸轉之處 | 交相會也라

按건대 諸募俞는 經에 無全文하니 未知何本이라 素通評虛實論에 腹暴滿 按之不下 取太陽經絡者 胃之募也라하니 亦未明指何穴이라

《懸解》⁴¹⁾

[1-8] 五藏之募는 皆在腹하니 肝之募은 期門이오 心之募는 巨闕이오 脾之募는 章門이오 肺之募는 中府요 腎之募는 京門이라 俞는 皆在背하니 總出於足太陽之經이라 背爲陽 腹爲陰이니 陰病必行於陽 陽病必行於陰이라 故로 令募在於腹 俞在於背也라 以募者는 藏中

陽氣之所結也니 是以로 陽病行於陰이라 俞者는 藏中陰氣之所輸也니 是以로 陰病行於陽也라

《闡註》⁴²⁾

[1-2] 此章은 發明募腧 | 所以在陰在陽之義라 陰者는 屬於腹하니 募居於腹하고 陽者는 屬於背하니 腧居於背라 募者는 結募也니 爲經氣之所聚하고 腧者는 輸也니 由此而輸彼也라 故로 募腧는 爲氣血陰陽周行懸節之所 | 니 而病邪도 亦無不從此而出이라 人如病在陰分하면 有腧方可以行陽하고 病在陽分하면 有募方可以行陰이라 否則間隔不通矣라 故로 令募在陰腧在陽也라 此義는 以瘡證으로 喻之하면 最爲確切하니 凡瘡은 必由外感暑濕之邪와 內傷生冷之氣라 其邪漸漬隱於募原하야 邪氣行陽則熱하고 行陰則寒이라 邪入淺 則道近하니 故日作하고 邪入深 則道遠하니 故間日作하고 愈深則愈遠이라 故로 有間二日三日者하니 此 | 非陰病行陽陽病行陰之明驗乎아 五臟之募穴은 肺募中府穴 心募巨闕穴 脾募章門穴 肝募期門穴 腎募京門穴라

《正義》⁴³⁾

[1-2] 募는 音幕니 經氣結聚處也라 俞는 輸轉之義니 經氣由此而輸於彼也라 五藏之募는 皆在腹하니 肺之募는 中府二穴이니 在胸部雲門下 同身寸之一寸 乳上三肋間 動脈陷中하야 屬本經하고 心之募는 巨闕一穴이니 在鳩尾下 同身寸之一寸하야 屬任脈하고 脾之募는 章門二穴이니 在大橫外直臍端하야 屬肝經하고 肝之募는 期門二穴이니 在不容兩旁 各

37) 屬: "屬肝經 肝脈"이 맞는 듯 하다.

38) 焦: 《靈樞》에는 '椎'로 되어 있다.

39) 者: 《靈樞》에는 없다.

40) 陽: '經字의 誤字인 듯 하다.

41) 黃元御, 難經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664.

《難經懸解》에서는 本難이 六十八難으로 되어 있고, 다음 難은 六十七難으로 되어 있다.

42) 丁錦, 古本難經闡註,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67

43)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118-120.

36) 徐大春, 難經經釋,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烏州出版社, 1968, p.45.

同身寸之一寸五分 直乳第二肋端하야 屬本經하고 腎之募는 京門二穴이니 在監骨腰中 挾脊季肋下하야 屬膽經하니라 五藏之俞는 皆在背하니 肺俞는 在第三椎之間하고 心俞는 在五椎之間하고 肝俞는 在九椎之間하고 脾俞는 在十一椎之間하고 腎俞는 在十四椎之間하고 又有膈俞者는 在七椎之間하니 皆挾脊兩旁 各同身寸之一寸五分하야 總屬足太陽經也라 陰病行陽 陽病行陰者는 背爲陽 腹爲陰하고 俞在於背하니 俞者는 藏中陰氣之所輸也니 是以로 陰病行於陽也라 募在於腹하니 募者는 藏中陽氣之所結也니 是以로 陽病行於陰也라 以見陰陽經絡 | 氣相交貫하고 藏府腹背 | 氣相通應하니 故로 其病氣之結聚輸轉丕處 交相會也라 經에 曰從陽引陰 從陰引陽이라하니 卽此義也라

按內經컨대 六府도 亦有募有俞하고 不獨五藏爲然也라 此章은 明藏府陰陽之氣 交相通貫하니 言五藏而不及六府者는 省文也라 胃之募는 中脘一穴이니 在臍上 同身寸之四寸하야 屬任脈하고 大腸募는 天樞二穴이니 在胃俞旁 同身寸之一寸五分 挾臍二寸하야 屬胃經하고 小腸募는 關元一穴이니 在臍下 同身寸之三寸하야 屬任脈하고 膽募는 日月二寸⁴⁴⁾이니 在期門下 同身寸之五分 直乳第二肋下하야 屬本經하고 膀胱募는 中極一穴이니 在臍下 同身寸之二寸三分하야 屬任脈하니 此六府之募는 亦皆在腹이라 胃俞는 在十二椎之間하고 大腸俞는 在十六椎之間하고 小腸俞는 在十八椎之間하고 膽之俞는 在十椎之間하고 膀胱俞는 在十九椎之間하고 三焦俞는 在十三椎之間하고 又有心包俞는 在四椎之間하니 亦俱挾脊兩旁 各同身寸之一寸五分하야 屬足太陽經也라 觀陰陽募俞 並舉爲言은 則非獨指五藏 | 明矣라 故로 補註之하노라

《匯海》⁴⁵⁾

〔1-2〕楊玄操注 腹爲陰하고 五藏之募 | 皆在腹하니 故云募皆在陰이라하고 背爲陽하고 五藏之俞 | 皆在背하니 故云俞皆在陽이라하

니라 內藏有病則 出行於陽하니 陽俞在背也라 外體有病則 入行於陰하니 陰募在腹也라 故로 鍼法에 曰 從陽引陰 從陰引陽이라하니 此之謂也라

丁履中注 此章은 發明 募俞 | 所以在陰在陽之義라 陰者는 屬於腹하니 募居於腹하고 陽者는 屬於背하니 俞居於背라 募者는 結募也니 爲經氣之所聚하고 俞者는 輸也니 由此而輸彼也라 故로 募俞는 爲氣血陰陽周行頓節之所 | 니 而病邪도 亦無不從此出入이라 如病在陰分하면 有俞方 可以行陽하고 病在陽分하면 有募方 可以行陰이라 否則間隔不通矣라 故로 令募在陰 俞在陽也라

丁德用曰 人背爲陽하고 腹爲陰하니 是言五藏俞 | 皆有陽者하니 背俞也라 故肺俞二穴은 在第三椎下兩傍相去同身寸一寸五分하고 心俞二穴은 在第五椎下兩傍相去同身寸一寸五分하고 肝俞二穴은 在第九椎下兩傍相去同身寸一寸五分하고 脾俞二穴은 在第十一椎下兩傍相去同身寸一寸五分하고 腎俞二穴은 在第十四椎下兩傍相去同身寸一寸五分이 是也라 肺之募는 中府二穴이니 在雲門下一寸乳上三肋間이 是요 心之募는 巨闕一穴이니 在鳩尾下一寸이 是요 脾之募는 章門二穴이니 在季脇下直臍 | 是요 肝之募는 期門二穴이니 在不容兩傍一寸五分이 是요 腎之募는 京門二穴이니 在腰中季脇本이 是也라

徐靈胎曰 諸募諸俞穴 | 詳見甲乙經이라

滑伯仁注 募與俞는 五藏空穴之總名也라 在腹爲陰하니 則謂之募라하고 在背爲陽하니 則謂之俞라하니라 募는 猶募結之募하니 言經氣之聚於此也라

編者는 按컨대 滑氏乃謂 募與俞 五藏空穴之總名이라하니 空은 讀爲孔이니 卽古之所謂孔穴者 | 是也라

《古義》⁴⁶⁾

45)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서울, 成輔社, 1978, pp.146-147.

46) 滕萬卿, 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55.

44) 寸: '穴'字의 誤字인 듯 하다.

[1-2] 按컨대 此는 因前篇正榮俞經合諸論
하야 次及腹背募俞之義라 募者는 結也라 各
陰穴은 在腹者라 俞者는 輸也라 名⁴⁷⁾陽穴은
在背者라 夫經之有募俞也는 皆藏氣所留止處
而俞與募에 又有差別이라 俞者는 屬於背部
太陽經하니 其血氣有積此어든 輸彼하고 募者
는 在胸腹部하야 或屬本經 或屬他經하니 血
氣逗留其處하야 內深連藏이라 故로 有病則陽
病行陰 陰病行陽하니 率皆緣此取之는 是鍼家
從陽引陰 從陰引陽之義也라 靈樞에 以任脈之
鳩尾腓腧으로 爲膏與肓之原하니 則在腹部亦
有原이라 所謂募者는 蓋募原之謂也라 凡周身
之氣穴을 總謂之俞라하니 此所謂俞者는 止言
背部五藏之俞耳라 讀者는 勿混同이어다

《衰腋》⁴⁸⁾

[1-2] 募는 猶募結之募니 言經氣之聚於此
也라 俞는 或作輸하니 猶委輸之輸하야 言經
氣由此而輸於彼也라 背爲陽 腹爲陰하니 募는
在腹爲陰也요 俞는 在背爲陽也라 五藏募穴은
肺之募는 中府二穴이요 心之募는 巨闕一穴이
요 脾之募는 章門二穴이요 肝之募는 期門二
穴이요 腎之募는 京門二穴이라 五藏俞穴은
肺俞는 在三椎下하고 心俞는 在五椎下하고
肝俞는 在九椎下하고 脾俞는 在十一椎下하고
腎俞는 在十四椎下하야 皆俠脊兩旁各一寸五
分이라 陰病行陽 陽病行陰者는 陰陽經絡이
氣相交貫하고 藏府腹背 氣相通應하야 所以
陰病有時而行陽하고 陽病有時而行陰也라 經
에 曰從陽引陰 從陰引陽이라하니라 紀氏曰
陰病生於內하야 而行於外하니 卽陰行陽也라
故로 陽俞在背하고 陽病生於外하야 而行於內
하니 卽陽行陰也라 故로 陰募在腹也라하니라

《疏證》⁴⁹⁾

按先子曰 募는 檢字書에 曰廣求也라하니
無干人身之義라 因考素靈諸篇하면 募者는 幕
之訛也니 募는 舊從肉作膜이라 素問太陰陽明
論에 曰脾與胃는 以膜相連이라하며 新校正에
云太素에 膜은 作幕이라하며 又瘡論에 曰邪

氣內薄于五臟하야 橫連募原이라하며 新校正
에 云全元起本에 募는 作幕이라하고 又痿論
에 曰肝主身之筋膜이라하며 靈樞邪客篇에 曰
地有林木하고 人有募筋하니 此募는 幕字와
形相近이라 故로 易訛也라 素問舉痛論에 曰
寒氣客于腸胃之間 膜原之下라하고 又曰 寒氣
客于小腸膜原之間이라하며 靈樞百病始生篇에
曰 虛邪之中人也 傳舍于腸胃之外 募原之間이
라하고 又曰 或著于腸胃之募原이라하며 蓋膜
者는 內在各藏各府之間 而外連于驅殼矣요 藏
府之位于人身也라 背部則其氣從脊骨間而輸出
하고 腹部則其募連著于皮肉이라 故로 孔穴之
直其次者는 在背는 謂之俞요 在腹은 謂之募
라하니 肝募期門 膽募日月之類 是也라 素
問通評虛實論과 及此段에 俱訛從力作募호대
後人不察하고 遂相襲用하며 本義에 曰募는
猶募結之募라하니 抑亦失考라

【考察】

本難은 募穴과 俞穴에 대하여 論하였다.

《內經》에서 '募'字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고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通評虛實論》과
《奇病論》에서만이 穴位의 意味로 쓰였고, 나
머지에서는 膜의 意味로 쓰였다. 이는 이미
丹波元胤이 《難經疏證》에서 指摘한 것으
로, 《內經》에서 直接的으로 肝募는 期門이
며 膽募는 日月이라고 한 곳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일부분이지만 《靈樞背輸篇》에
서 背俞穴의 位置를 말하였다고 하더라도⁵⁰⁾,

48) 加藤宗博, 盧經衰腋, 北京, 中醫古籍出版
社, 1984, pp.43-44.

49) 丹波元胤, 難經疏證, 서울, 一中社,
1991, p.1016.

50) "黃帝問於岐伯曰 願聞五藏之腧 出於背者
岐伯曰 胸中大腧 在杼骨之端 肺腧在三椎之
間 心腧在五椎之間 膈腧在七椎之間 肝腧在
九椎之間 脾腧在十一椎之間 腎腧在十四椎之
間 皆俠脊相去三寸所 則欲得而驗之 按其處
應在中而痛解 乃其腧也 灸之則可 刺之則不
可 氣盛則寫之 虛則補之 以火補者 毋吹其火
須自滅也 以火寫者 疾吹其火 傳其艾 須其火
滅也"

47) 名: '各'字의 誤字인 듯 하다.

素問·通評虛實論	腹暴滿 按之不下 取手太陽經絡者胃之募也
素問·瘧論	其間日發者 由邪氣內薄於五藏 橫連募原也
素問·奇病論	氣上溢 而口爲之苦 治之以膽募俞
靈樞·百病始生	留而不去 傳舍於腸胃之外 募原之間 留著於脈 稽留而不去 息而成積 或著孫脈 或著絡脈 或著經脈 或著輸脈 或著於伏衝之脈 或著於臂筋 或著於腸胃之募原 飽食則痛 飢則安 其著於腸胃之募原也
靈樞·邪客	地有林木 人有募筋
靈樞·歲露論	故其病稍益 至其內搏於五藏 橫連募原

本難에서 말한 “五藏募皆在陰 而俞在陽者”의 直接的인 根據가 《內經》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思料된다.

五臟의 募穴은 모두 腹部에 있는데 胸腹部는 陰에 속하기 때문에 募가 陰에 있다고 하였고 俞穴은 모두 背部에 있는데 背部는 陽에 속하기 때문에 俞는 陽에 있다고 한 것이다. 徐靈胎는 六腑의 募穴도 역시 陰에 있고 俞穴도 역시 陽에 있으므로 五臟만 그런 것이 아니며 下節에 陰陽을 모두 들어서 말하였으므로 五臟 아래에 六腑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筆者도 五臟六腑라고 말하는 것이 옳으며 혹시 省略한 것이 아닌가 思料된다.

陰病行陽에 대하여 楊玄操는 內臟에 病이 있으면 陽으로 出行하므로 陽俞가 背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고, 葉霖은 俞가 背에 있는 것은 俞는 藏中の 陰氣가 輸하는 곳이니 따라서 陰病에 行於陽한다고 하였다. 또 張世賢은 陰病을 ‘風寒之邪’를 예로 들어 說明하였고, 丁錦은 瘧疾에 比喩하여 說明하였다. 唐湘淸은 이른바 陰病行陽이라는 것은 背가 陽에 속하고 俞가 背에 있는데 俞는 藏中の 陰氣를 輸送하므로 陰病行陽이라고 하였다. 陽病行陰에 대하여 楊玄操는 外體에 病이 있으면 陰으로 入行하므로 陰募가 腹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고, 葉霖은 募가 腹에 있는 것은 募는 藏中の 陽氣가 結하는 곳이니 따라서

陽病에 行於陰한다고 하였다. 또 張世賢은 陽病을 ‘水穀之寒熱’을 예로 들어 說明하였다. 唐湘淸은 이른바 陽病行陰이라는 것은 腹이 陰에 속하고 募가 腹에 있는데 募는 藏中の 陽氣를 結聚하므로 陽病行陰이라고 하였다.

滑壽는 이에 대하여 陰陽經絡이 氣相交貫하고 藏府腹背가 氣相通應하므로 陰病이 때로 行陽하고 陽病은 때로 行陰한다고 하였는데, 여러 注家들의 意見中에서 가장 包括的인 것으로 보인다. 筆者도,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葉霖이 말한바⁵¹⁾와 같이 陰分과 陽分이

서로 통하여 있으므로 治療에도 陰陽募俞를 잘 活用할 것을 強調한 것으로 特定한 陰病이나 陽病을 가리켜 말한 것은 아니라고 思料된다.

이상의 內容을 圖表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本義	陰陽經絡이 氣가 서로 交貫하고 藏府腹背의 氣가 서로 通應하기 때문에 陰病은 行陽하고 陽病은 行陰한다고 說明함.
集注	《本義》와 비슷한 內容을 보임.
圖註	風寒之邪가 外入하면 人之背에 있고, 水穀之寒熱에 感하면 人六腑를 害하여 傳于五臟하므로 募穴은 在腹하고 腧穴은 在背라고 說明함
經釋	《本義》와 비슷한 內容을 보임.
懸解	《本義》와 비슷한 內容을 보임.
闡注	瘧疾發作的 間隔을 예로 들어 說明함.
正義	《本義》와 비슷한 內容을 보임.
匯海	위의 內容을 綜合引用함.
古義	特別한 言及이 없음.
稟腋	《本義》와 비슷한 內容을 보임.
疏證	특별한 言及이 없음.

이것은 또한 鍼灸家에서 항상 引用하는 ‘從陽引陰 從陰引陽⁵²⁾’의 原理이기도 하다.

51) 《難經正義》: “此章 明藏府陰陽之氣交相通貫”

52) 《素問·陰陽應相大論》: “故善用鍼者 從陰引陽 從陽引陰 以右治左 以左治右 以我知彼 以表知裏 以觀過與不及之理 見微得過 用之不殆”

第六十八難(井榮俞經合穴의 意義와 主治하는 病證)

六十八難曰 五藏六腑 各⁽¹⁾有井榮俞經合穴 皆何所主⁽¹⁾오

然이라 經言所出爲井 所流爲榮⁽²⁾ 所注爲俞 所行爲經 所入爲合⁽²⁾이라하니 井主心下滿⁽³⁾하고 榮主身熱⁽⁴⁾하고 俞主體重節痛⁽⁵⁾하고 經主喘咳寒熱⁽⁶⁾하고 合主逆氣而泄⁽⁷⁾라니 此五藏六腑井榮俞經合所主病也⁽⁸⁾라

【解釋】

五臟六腑에 모두 井榮俞經合穴이 있는데 主治하는 病은 무엇입니까?

답이다. 經에 이르기를 所出爲井 所流爲榮 所注爲俞 所行爲經 所入爲合이라고 하였는데 井은 心下滿을 主하고 榮은 身熱을 主하고 俞는 體重節痛을 主하고 經은 喘咳寒熱을 主하고 合은 逆氣而泄을 主하니 이것이 五臟六腑의 井榮俞經合이 主하는 病이다.

【出處】

【校勘】

〈1〉 各: 《經釋》, 《匯海》, 《古義》, 《夏腋》에는 '皆'로 되어 있다.

〈2〉 榮: 《經釋》, 《正義》에는 '榮'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所出爲井: 井은 水의 源이다. 이것은 井穴이 經氣가 開始發出하는 곳이라는 것을 譬喩한 것이다⁵³⁾.

所溜爲榮: 매우 작은 물의 흐름을 '榮'이라고 한다. 이것은 榮穴을 흐르는 氣가 比較的 微弱함을 譬喩한 것이다⁵⁴⁾.

所注爲俞: '注'는 灌入을 뜻한다. '俞'는 轉輸를 意味한다. 이것은 俞穴의 經氣가 比較的 盛하여 물이 다른 곳으로 轉輸됨을 譬喩한 것이다⁵⁵⁾.

所行爲經: '經'은 '徑'의 意味이다. 이것은 經穴의 經氣가 盛하여 물결이 앞으로 流動하는 듯함을 譬喩한 것이다⁵⁶⁾.

所入爲合: '合'은 '會合'의 뜻이다. 이것은 經氣가 合穴에서 深入하여 마치 百川이 大海에서 合流하는 듯함을 譬喩한 것이다⁵⁷⁾.

【各家注】

《本義》⁵⁸⁾

〔1-8〕 主는 主治也라 井은 谷井之井이니 水源之所出也라 榮은 絶小水也라 井之源이 本微라 故로 所流尙小而爲榮이라 俞는 輸也요 注也니 自榮而注 乃爲俞也라 由俞而經過於此를 乃謂之經이라 由經而入於所合을 謂之合이니 合者는 會也라

靈樞第一篇에 曰 五藏五俞니 五五二十五俞요 六腑六輸니 六六三十六俞라 (所俞字空穴之總名 凡諸空穴皆可以言俞) 經脈十二요 經脈十五라하니 凡二十七氣所行이 皆井榮俞經合之所係하야 而所主病各不同이라 井主心下滿은 肝木病也니 足厥陰之支 從肝別貫鬲上注肺라 故井主心下滿이라 榮主身熱은 心火病也라 俞主體重節痛은 脾土病也라 經主喘咳寒熱은 肺金病也라 合主逆氣而泄은 腎水病也라

謝氏曰 此는 舉五藏之病하야 各一端爲例하니 餘病은 可以類推而互取也라 不言六府者는 舉藏足以該之 날새니라

《集注》⁵⁹⁾

〔1-3〕 呂曰 井者는 木이요 木者는 肝이니 肝主滿也라

虞曰 井은 法木以應肝하고 脾位在心下하니 今邪在肝하야 肝乘脾하니 故로 心下滿에 今治之於井은 不令木乘土也니라

〔4〕 呂曰 榮者는 火이요 火者는 心이니 心主

54)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79, p.148.

55)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79, pp.148-149.

56)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79, p.149.

57)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79, p.149.

58) 滑壽, 難經本義, 臺北, 世一書局, 1980, pp.123-124.

59) 王九思, 難經集注,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5, pp.265-266.

53)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79, p.148.

身熱也라

虞曰 榮은 爲火以法心하고 肺는 屬金하야 外主皮毛하니 今心火灼於肺金하니 故로 身熱 謂邪在心也라 故로 治之於榮하야 不令火乘金 則身熱必愈也니라

[5] 呂曰 俞者는 土요 土者는 脾니 脾主體 重也라

虞曰 俞者는 法土應脾하니 今邪在土하면 土必刑水하리니 水者는 腎이요 腎主骨이라 故로 病則節痛하고 邪在土하야 土自病則體重 하니 宜治於俞穴이니라

[6] 呂曰 經者는 金이요 金은 主肺니 肺主 寒熱也라

虞曰 經은 法金應肺하니 今邪在經則肺爲病 하야 得寒則咳하고 得熱則喘이라 今邪在金하면 金必刑木하리니 木者는 肝이요 肝在志爲 怒라 怒則氣逆乘肺하니 故로 喘何以然謂肝之 支別이오 從肝別貫膈上注肺라 脈要精微論에 曰血在脇下하야 令人喘逆이라하니 此之謂也 라 治之於經則金不刑於木矣니라

[7] 呂曰 合者는 水요 水는 主腎이니 腎主 泄也라

虞曰 合은 法水應腎하니 腎氣不足하야 傷 於衝脈則氣逆而裏急이라 腎主開竅於二陰호대 腎氣不禁하니 故로 泄注하니라 邪在水하면 水必乘火하니 火者는 心이니 法不受病이라 肝木은 爲心火之母요 爲腎水之子라 一憂는 母受邪요 二憂는 子被刑이라 肝在志爲怒하니 憂則怒하고 怒則氣逆故也라 此는 五行更相乘 剋이라 故病有異同이라 今治之於合하야 不令 水乘火則肝木不憂라 故로 氣逆止호대 邪不在 腎則無注泄이라 以上은 井榮俞經合이 法五行 應五藏하야 邪湊其中라 故로 主病이 如是라 善診者 審而行之則知自病或相乘이니 虛則 補之하고 實則瀉之어다

[8] 丁曰 此는 是五藏井榮俞經合也라 經言 井主心下滿者는 爲肝病即逆滿이니 當取其諸 井이니 以主其心下滿也라 榮主身熱者는 榮者 는 火也라 故로 身熱에 當取其諸榮이니 以主 其熱也라 俞主體重節痛은 俞者는 土也라 故

로 令體重節痛이니 當取其諸俞이니 以主其體 重節痛也라 經主喘咳寒熱은 經者는 金也라 故로 喘咳而發寒熱에 當取其諸經이니 以主其 喘咳寒熱也라 合主逆氣而泄은 合爲水요 水主 泄이니 當取其諸合이니 以主逆氣而泄也라

虞曰 以上井榮俞經合之生病을 各依四時而 調治之는 謂四時之邪 各湊榮俞中留止也라

《圖註》60)

[1-8] 肝井大敦 榮行在⁶¹⁾間 腧大衝 經中 封 合曲泉 肺井所傷榮魚際 腧太淵 經經渠 合 尺澤 心并⁶²⁾少衝 榮少府 腧神門 經靈道 合 沙⁶³⁾海 腎井湧泉 榮然谷 腧太谿 經復留 合陰 谷 脾井隱白 榮大都 腧太白 經商丘 合陰陵泉 心包絡井中衝 榮勞宮 腧太陵 經間使 合曲澤 이니 此는 五臟各有井榮腧經合也라 膽井竅陰 榮俠谿 腧臨泣 原邱墟 經陽輔 合陽陵泉 大腸 井商陽 榮上⁶⁴⁾間 腧三間 原合谷 經陽谿 合曲 池 小腸井少澤 榮前谷 腧後谿 原腕骨 經陽谷 谷⁶⁵⁾小海 胃井厲兌 榮內庭 腧陷谷 原衝陽 經 解谿 合三里 膀胱井至陰 榮通谷 腧東骨 原京 骨 經崑崙 合要⁶⁶⁾中 三焦井關⁶⁷⁾衝 液⁶⁸⁾門 腧中渚 原陽池 經支溝 合天井이니 此는 六腑 各有井榮腧經合也라 府則多一原穴이라 紀氏 曰井者는 若水之源하야 水始出이라 其源流之 尙微라 故로 謂之榮이라 水上而注下하야 下 復承而流之라 故謂之腧라 水行經歷而過라 故 謂之經이라 經過于此하야 乃入于臟腑하야 與 衆經相會라 故謂之合이라 素問에 云六經爲川 이요 腸胃謂海也라하니라 范晞曰井은 法水應 肝하고 脾位在心下하니 令邪在肝하야 肝侵脾 하니 故로 心下滿에 今治之于井하야 不令木

60) 張世賢, 圖註難經脈訣, 臺北, 大學書局, 1976, pp.7-8.

61) 在: 衍文인 듯하다.

62) 并: '井'의 誤字인 듯하다.

63) 沙: '少'의 誤字인 듯하다.

64) 上: '二'의 誤字인 듯하다.

65) 谷: '合'의 誤字인 듯하다.

66) 要: '委'의 誤字인 듯하다.

67) 關: '關'의 誤字인 듯하다.

68) 液: 앞에 '榮'이 빠진 듯하다.

乘土也라 榮은 法火以應心하고 肺는 屬金하야 外主皮毛하니 火心灼乎肺金이라 故로 心熱謂邪在心也라 故로 治之于榮하야 不令火之乘金則身熱必愈矣라 法土應脾하니 今邪在土하면 土必刑水하리니 水屬腎하고 腎主骨이라 故로 病則節痛하고 邪在土하야 土自病則體重하니 治臑穴이라 經은 法金應肺하니 今邪在肺하야 得寒則咳하고 得熱則喘하니 金邪必致剋木이라 木者는 肝이요 肝在志爲怒라 怒則氣逆하니 亦能作喘하니 治之於經則金不剋木矣라 合은 法水應腎하니 腎氣不足하야 傷于衝脈則氣逆이라 腎開竅于二陰하니 氣逆則不禁而下泄이라 故氣逆而泄合主之也라

《經釋》69)

〔1〕言 此諸穴이 刺之主治何病也라

〔2〕出은 始發源也라 流는 漸盛能流動也라 注는 流所向注也라 行은 通條遠實也라 入은 藏納歸宿也라 五句는 本靈九鍼十二原篇經文이라 流作溜하니 義同이라

〔3-8〕由六十四難 五行所屬으로 推之則心下滿은 爲肝木之病이요 身熱은 爲心火之病이요 體重節痛은 爲脾土之病이요 喘欬寒熱은 爲肺金之病이요 逆氣而泄은 爲腎水之病이라 然이나 此는 亦論其一端耳요 兩經辨病取穴之法은 實不如此하니 不可執一說而不知變通也라

《懸解》70)

《闡註》71)

〔1-8〕自六十二難至此는 俱發明井榮臑原經合之穴하고 以下는 俱發明針刺之法也라 紀氏曰 井者는 若水之源이라 水始出源流之尙微故로 謂之榮이라 水上而注下하야 下復承而流之 故로 謂之臑라 水行經歷而過 故로 謂之經이라 經過於此하야 乃入於臟腑與衆經相會 故로 謂之合이라 素問72)曰 六經은 爲川이요 腸胃는 爲海也라 晞范曰 井은 法木以應肝하고 脾之位在心下하니 今邪在肝하야 肝侵脾하니 故로 心下滿에 今治之於井하야 不令木乘土也

라 榮은 法火以應心하고 肺는 屬金하야 外主皮毛하니 心火灼於肺金이라 故로 身熱謂邪在心也라 故로 治之於榮하야 不使火來乘金則身熱自愈矣라 臑는 法土以應脾하니 今邪在土하면 土必剋水하리니 水者腎也하고 腎主骨이라 故로 病則節痛하고 邪在土하야 土自病則體重하니 故治之於臑이라 經은 法金以應肺하니 今邪在肺하야 得寒則咳하고 得熱則喘하니 金必剋木이라 木者는 肝이요 肝在志爲怒라 怒則氣逆而作喘하니 故로 治之於經이라 合은 應水而主腎하니 腎氣不足하야 傷於衝脈則氣逆이라 腎開竅于二陰하니 氣逆則不禁而下泄이라 故宜治合也라 五臟六腑 各有正營臑經合之穴이나 其原穴은 獨在六腑라 故로 六腑多一原穴하야 並列於後라

《正義》73)

〔1-8〕主는 主治也라 經言은 靈樞九鍼十二原篇文也라 井은 山谷中泉水之所出也라 榮은 小水尙未能流利者也라 俞는 輸瀉之所注也라 經은 由俞而經過之徑也라 合은 水流而會合之處也라 井主心下滿者는 井應木하고 木者肝이니 肝主滿重節痛也라 水應土하고 土者脾이니 脾主體重也라 經主欬嗽寒熱者는 經應金하고 金者肺이니 肺主寒熱也라 合主氣逆而泄者는 合應水하고 水者腎이니 腎主泄也라 此는 論五藏爲病之一端耳라 不言六府者는 舉藏足以該府也 且 새니라 然이라 內經辨病取穴之法이 實止此하니 不可執一說而不知變通也라

70) 《難經懸解》에서는 本難이 六十七難으로 되어있고, 이전 難이 六十八難으로 되어 있다.

71) 丁錦, 古本難經闡註,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67

72) 《素問陰陽應象大論》: “天氣通於肺 地氣通於膻 風氣通於肝 雷氣通於心 谷氣通於脾 雨氣通於腎 六經爲川 腸胃爲海 九竅爲水注之氣 以天地爲之陰陽 陽之汗 以天地之兩名之 陽之氣 以天地之疾風名之 暴氣象雷 逆氣象陽 故治不法天之紀 不用地之理 則災害至矣”

73)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118-120.

69) 徐大春, 難經經釋,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烏州出版社, 1968, p.45.

按此七難은 論俞穴也라 然이나 某穴至某穴之一寸者는 將謂周尺耶아 秦尺耶아 漢尺耶아 抑近世之尺耶아 聚訟紛紜하니 莫衷壹이라 是는 皆爲不明同身取寸之義也라 或以患人之中指中節取寸으로 便爲獨得心傳이나 殊不知瘦人指長而身小하니 則背腹之橫寸이 豈不太闊하며 肥人指短而身長하니 則背腹之橫寸이 豈不太狹하고 有身長指長而頭小者는 則頭間之寸이 豈不嫌長하며 有身短指短而頭大者則頭間之寸이 豈不嫌短하야 似此肥瘦長短之差訛를 安能準의리오 所謂同身取寸者는 必同其身體而取之也라 考其法은 以靈樞度骨篇尺寸爲主하니 再量人身尺寸하야 隨取而折之하면 自無長短肥瘦之差訛라 假如骨度篇에 云 肩至肘 長一尺七寸이라하니 量患人由肩至肘하야 長一尺三寸六分이어든 以八折合之니 所云某穴至某穴一寸者는 僅得八分이라 餘可類推라 此는 同身取寸之活法이요 鍼灸之要事니 不可不知也니라

附靈樞骨度篇⁷⁴⁾

《匯海》75)

[1-8] 徐靈胎曰 此는 亦論其一端耳라 靈素辨病取穴之法이 實不如此하니 不可執一說而不知變通也라

日醫滕萬卿注에 五俞主治 豈止此數證이리오 是는 舉其所要者라 所謂井爲東方水⁷⁶⁾ 則主陽氣開發이니 其心下滿은 乃知各經邪鬱이라 故發之라 榮爲南方火 則主陽氣遍滿이니 其身熱은 乃知陽邪偏盛이라 故泄之라 俞爲中央土 則主無過不及이니 其體重節痛者는 中氣不和之所致라 故和之라 經爲西方金 則主陽氣下降이니 其喘咳寒熱者는 是陽氣失降 而陰氣交爭이라 故收之라 合爲北方水 則主陽氣閉藏이니 其逆氣而泄者는 是陽不歸根而下虛라 故止之라 凡諸井榮은 皆屬春夏하니 故行鍼之道는 專主發泄하고 經合은 皆繫秋冬하니 則其施治는 亦主收藏하고 俞原은 在其中間하니 其爲三焦之所過 則使諸經氣無過不及之差라 此篇은 因前諸論하야 結以主治法이요 此下諸

篇은 皆論鍼家補瀉之法이라

晞范注에 井은 法木以應肝하고 脾之位在心下하니 今邪在肝하야 肝侵脾하니 故로 心下滿에 今治之於井하야 不令木乘土也라 榮은 法火以應心하고 肺는 屬金하야 外主皮毛하니 心火灼於肺金이라 故로 身熱謂邪在心也라 故로 治之於榮하야 不使火來乘金則身熱自愈矣라 腧는 法土以應脾하니 今邪在土하면 土必剋水하리니 水者腎也하고 腎主骨이라 故로 病則節痛하고 邪在土하야 土自病則體重하니 故治之於腧이라 經은 法金以應肺하니 今邪在肺하야 得寒則咳하고 得熱則喘하니 金必剋木이라 木者는 肝이요 肝在志爲怒라 怒則氣逆而作喘하니 故로 治之於經이라 合은 應水而主腎하니 腎氣不足하야 傷於衝脈則氣逆이라 腎開竅於二陰하니 氣逆則不禁而下泄이라 故宜治合也라 五臟六腑 各有正營腧經合之穴이나 其原穴은 獨在六腑라 故로 六腑多一原穴하야 並列於後라

滑伯仁注에 主는 主治也라 井은 谷井之井이니 水源之所出也라 榮은 絕小水也니 井之源本微라 故로 所流尙小而爲榮이라 俞는 輸也요 注也니 自榮而注하야 乃爲俞也라 由俞而經過於此하니 乃謂之經이라 由經而入於合하니 謂之合이라 合者는 會也라

《古義》77)

[1-8] 按五俞主治 豈止此數證이리오 是는 舉其要者라 所謂井爲東方木 則主陽氣開發이니 其心下滿은 乃知各經邪鬱이라 故發之라 榮爲南方火 則主陽氣遍滿이니 其身熱은 乃知陽邪偏盛이라 故泄之라 俞爲中央土 則主無過不及이니 其體重節痛者는 中氣不和之所致라 故和之라 經爲西方金 則主陽氣下降이니 其喘咳寒熱者는 是陽氣失降 而陰氣交爭이라 故收之라 合爲北方水 則主陽氣閉藏이니 其逆氣而

75)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서울, 成輔社, 1978, pp.146-147.

76) 水: '木'의 誤字인 듯하다.

77) 滕萬卿, 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p.55.

74) 內容이 같으므로 省略함.

泄者는 是陽不歸其根而下虛라 故止之라 凡諸井榮은 皆屬春夏하니 故行鍼之道는 專主發泄하고 經合은 皆繫秋冬하니 則其施治는 亦主收藏하고 俞原은 在其中間하니 共爲三焦之所過 則使諸經氣無過不及之差라 此篇은 因前諸論하야 結以主治法이요 此下諸篇은 皆論鍼家補瀉之法이라

《衰腋》78)

[1-8] 主는 主治也라 井은 谷井之井이니 水源之所出也라 榮은 絶小水也니 井之源本微라 故로 所流尙小而爲榮이라 俞는 輸也요 注也니 自榮而注하야 乃爲俞也라 由俞而經過於此하니 乃謂之經이라 由經而入於所合하니 謂之合이라 合者는 會也라 靈樞第一篇曰 五藏五俞니 五五二十五俞요 六府六輸니 六六三十六俞라 (此俞字空穴之總名 凡諸空穴皆可以言俞)經脈十二요 經脈十五라하니 凡二十七氣所行이 皆井榮俞經合之所係하야 而所主病各不同이라 井主心下滿은 肝木病也니 足厥陰之支 | 從肝別貫膈上注肺라 故井主心下滿이라 榮主身熱은 心火病也라 俞主體重節痛은 脾土病也라 經主喘欬寒熱은 肺金病也라 合主逆氣而泄은 腎水病也라 謝氏曰 此는 舉五藏之病하야 各一端爲例하니 餘病은 可以類推而互取也라 不言六府者는 舉藏足以該之글새니라

《疏證》79)

按自六十二難 至此는 論俞穴하니 是爲第五篇이라

【考察】

本篇에서 말한 五句는 《靈樞·九鍼十二原篇》에 나온다. 《靈樞》原文에서는 '流'가 '溜'字로 되어있는데 意味는 서로 같다. 井榮俞經合의 性質이 다르므로 主治하는 病證도 또한 역시 다른데, 그 主治症狀은 《難經》이 처음으로 提唱한 것으로, 그 理致는 膝萬卿의 《古義》에 잘 나타나 있다.

本難이 이른바에 根據하면 井榮俞經合穴에 각기 主治하는 疾病이 있으나, 五臟六腑에

각각 井榮俞經合穴이 있는데 만일 心下滿이나 身熱 등의 症狀이 나타나게 되면 어느 經絡의 井榮 등의 穴을 取할 것인지는 說明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今釋》에서는 脈狀과 症狀 등의 다름으로 보아서 病이 어느 經絡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⁸⁰⁾고 하여 예를 들어 說明하였다. 여기서 말한 五種의 主病은 그 大略만을 말한 것이라는 意見에 대하여는 여러 注家들이 意見을 같이하였고, 그 主病에 대하여도 病理機轉에 대하여만 약간의 差異를 보였을 뿐, 대체로 肯定하는 態度를 보였다.

한편 葉霖은 《正義》에서 俞穴篇을 總括하면서 同身寸法에 대하여 言及하였다. 肥人의 一寸과 瘦人의 一寸이 다르므로 《靈樞·脈度篇》의 脈長에 基準할 것을 主張하였다. 그런데 俞穴篇에서는 某穴에서 某穴까지가 몇촌이라는 內容은 보이지 않고, 앞부분에서 간혹 이러한 言及이 보일 뿐이다. 葉霖이 말한 內容은 取할만 하지만 이러한 注를 달게 된 理由는 考察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疑問이 남는 것은 大部分의 注家들이 이러한 五種의 主治病에 대하여 井榮俞經合을 肝心脾肺腎이나 木火土金水와 關聯하여 說明하고 있다는 것이다. 五臟經脈은 陰經으로 木火土金水の 順序이지만 六腑經脈은 陽經으로 金水木火土의 順序로서 大腸·膀胱·膽·小腸·胃의 順序이다. 예를 들어 大腸經의 井穴이라면 金으로서 大腸과 關聯한 主治症狀이 提示되었어야 하고, 또 그렇게 說明이 可能하여야 한다. 大略을 들어서 말한 것이라 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考察은 不可하기 때문에 疑問으로 남겨둔다.

IV. 結論

79) 丹波元胤, 難經疏證, 서울, 一中社, 1991, p.1017.

80)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國立編譯館, 1967, p.252.

78) 加藤宗博, 虛經衰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pp.43-44.

《難經》中에서 俞穴에 대해 言及하고 있는 第六十六難에서 第六十七難까지의 內容은 六十六難에서는 十二經의 原穴과 三焦의 關係에 관하여, 六十七難에서는 募穴과 俞穴의 意義 및 그 治療作用에 대하여, 六十八難에서는 五俞穴의 意義와 主治하는 病症에 관하여 論하였다. 《內經》에서 말하지 못한 俞穴理論을 말하였으나 後世에 論難의 餘地도 없지 않다. 그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內經》에서의 十二原穴은 五臟에서의 原穴을 說明한 部分과 六腑에서의 原穴만을 言及한 두가지가 있으나, 《難經》에서는 이 두가지를 합하고, 兌骨이 補充되어, 十二原穴을 提示하였으니, 이는 《內經》의 理論을 修訂補完한 附分으로 後世에도 이러한 理論을 따르고 있다.

2. 十二經은 모두 俞穴로서 原穴을 삼는데 그 理由는 三焦의 氣가 그 곳에서 留止하기 때문이며 그 根本은 臍下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原穴만을 提示한 《內經》보다 進一步한 說明이라고 할 것이다.

3. 募穴은 모두 腹部에 있고 俞穴은 모두 背部에 있어서, 陰陽이 서로 交通하므로 陰病은 行陽하고 陽病은 行陰함을 말하였다.

5. 六十八難에서는 最初로 五俞穴의 主治病을 말하였는데, 이는 脈氣의 循行만을 말한 《內經》의 理論을 治療적인 分野에까지 發展시킨 것이었다.

6. 以上の 六十六難에서 六十八難까지의 內容은 《內經》에서 說明하지 못하였거나 없던 內容에 대하여 進一步한 論述을 보였으나 未盡한 점이 없지 않으므로 더욱 깊은 研究를 必要로 하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成文化社 1989
2. 千柄泰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관한 考察 대전 大田大學校 1993
3. 凌輝星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4. 北京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5.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6. 唐湘清 難經今釋 臺北 國立編譯館 1985
7. 丹波元胤 難經疏證 서울 一中社 1991
8. 滕萬卿 難經古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9. 滑壽 難經本義 臺北 臺灣中華書局 1985
10. 張世賢 圖註難經脈訣 臺北 大孚書局 1976
11. 徐大春 難經經釋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烏州出版社 1968
12. 黃元御 難經懸解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13. 丁錦 古本難經闡註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14.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15.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서울 成輔社 1978
16. 王九思 難經集注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5